



www.eulji.ac.kr

을지대학보

THE EULJI UNIVERSITY TIMES

제302호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 오창석
편집장 신희진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eulji.ac.kr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보 제302호 CONTENTS

- 01 1면보도 을지대학교 범석의학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 승격 학내소식
- 05 제42회 을지문학상 공모전
- 06 사회문화 독서 열풍 실업급여
- 지식·학생 차량 급발진 사고·황금티켓 증후군
- 09 특집 퇴임 기자의 글
- 10 특집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 기자수첩 노동법을 넘어선 노란봉투법
- 12 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



을지대학교 범석의학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 승격

을지대학교 범석의학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됐다. 을지대는 범석의학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성남시의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1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밝혔다. 특히, 이번 범석의학박물관의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은 기존 경기도 소관이었던 박물관 등록에 관한 사무가 성남시로 이관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소장품 ▲운영계획 ▲운영실적 ▲시설 등 4개 분야의 14개 평가지표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을지대는 2023년 2월 1,000여 종의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전시실과 수장고 개선 공사, 특별전 사·문화행사교육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등, 제1종 전문박물관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은 "범석의학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된 것은 전시된 의학 소장품의 높은 가치 및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해준 관계 교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의학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범석의학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되면서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범석의학박물관이 보건의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범석의학박물관은 을지재단 설립자인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의 인간사랑·생명 존중의 뜻을 기리고, 보건의료 역사의 장으로 발돋움하고자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2003년 10월 15일 개관했다.

전시관에는 인체모형과 동서양 의료도구, 현미경, 지멘스 헬시니어스 전시품 등 300점이 넘는 의학 관련 물품과 평생을 의학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쓴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의 개인 업적 기록물과 소장품도 전시돼 있다. 세계 최초로 상품화되었던 복합 단안 현미경(Culpeper-type), 단안 현미경을 발전시킨 복합 쌍안 현미경(Andrew Ross)과 나이팅게일의 친필 편지, 에칭 초상화, 찰스 다윈 저서 '종의 기원' 등 17~20세기 의학 고서를 만날 수 있다.

범석의학박물관은 사전 예약제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문의: 을지대학교 범석의학박물관
(031-740-7339, bsmuseum@eulji.ac.kr)

학보가 새로워집니다!

2025년부터 을지대학보가 디지털 미디어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을지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더 빠르게 만나시려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성남수정경찰서, 학생 안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을지대학교와 성남수정경찰서가 학생 안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0일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과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범죄 예방 활동 적극 지원 ▲공익 목적 캠페인 등 상호 협동 교류 ▲지역 사회 재능 나눔 봉사를 위한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 및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사항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수정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 학생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학생처

을지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을지대학교가 여성가족부 주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학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표창을 수여했다.

을지대는 인권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U-S-A-F-E)'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U-S-A-F-E)'은 ▲Special 교육(특수 전공·학과 중심) ▲Adaptation 교육(유학생 등 소수집단 학생 적응형) ▲Focusing 교육(학생리더/외부활동 중심) ▲Essential 교육(대상별 필수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조해연 을지대학교 인권센터장(아동청소년상담전공 교수)은 "지식 전달 중심 일방향 교육이 아닌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교육 효과와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승진 을지대학교 학생처장(레저산업전공 교수)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김인식 단장, '과학기술 학술단체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 참석



산학협력단 김인식 단장이 대한생명과학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학술단체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주요 학회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현장 안착 등을 위한 대한민국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100분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선도형 연구개발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기획으로 혁신적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혈액검사학회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정부캠퍼스 학생팀(왼쪽), 우수상을 수상한 성남캠퍼스 학생팀(오른쪽)

'2024년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제1회 학생포럼에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와 성남캠퍼스 임상병리학과 재학생들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최우수상 주제인 'New Insights into Treatment of Imatinib Resistance in CEL'는 만성호산구성 백혈병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내용으로 김소연, 민유빈, 박지수, 송지인, 이에림 의정부캠퍼스 학생팀이 발표했으며, 성남캠퍼스 최에서, 장보현 성남캠퍼스 학생팀은 'T cell Plasticity in Asthma'는 천식에 작용하는 신규 도음 T세포에 대한 최신 연구 내용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두 캠퍼스 학생팀들의 지도를 맡은 김인식 교수는 "이번 학생포럼의 수상은 보건의료에서의 을지대학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으며, 앞으로도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술대회에서 연이은 수상 쾌거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PNF)학회 대상팀(왼쪽), 대한물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상팀(오른쪽)

물리치료학과는 지난 11월 9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물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물리치료학과 강승묵 학생 외 11인이 학생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달 16일에 개최된 '2024년도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학회(대한PNF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엄태준 학생 외 12인이 우수논문 공모전(학생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권혁규 지도교수는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차세대 물리치료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속에서 학생 연구팀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최우수상(등)을 수상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화장품과학전공

을지대학교, '뉴로코스메틱스 청년창업 특강' 개최 - 뇌과학, IT, 화장품 분야 교수진 참여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가 주관한 '성남 뉴로코스메틱스 청년창업 특강'이 지난 10월 21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번 특강은 뇌과학자·IT전문가·화장품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청년들의 뉴로코스메틱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에게 실습을 통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뉴로코스메틱스 오감을 자극하라'(김규리 을지대학교 화장품과학전공 교수) ▲'AI를 이용하여 나의 피부톤 분류'(염호준 을지대학교 의료공학전공 교수) ▲'향기의 뇌과학 그리고 향기 산업'(문제일 DGIST 뇌과학과 교수)이라는 3개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강의 기획책임자로 참여한 김규리 교수는 성남시의 미취업 및 취업 분야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뇌과학·IT·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융합학문을 소개함으로써 취업 분야의 확장,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표를 갖고 특강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교육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을지대학교 교수진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복지대학원 유아교육보육상담학과

을지대학교 위탁운영, 성남시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남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돌봄터 우수사례 선정



지난 10월 31일(목) 성남시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가 성남시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학교돌봄터 운영 협의회”에서 학교돌봄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성남시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센터장인 유아교육보육상담학과 최소영 학우(석사과정)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학교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어떻게 높은 품질의 지역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회는 인근 초등학교의 교감, 행정실장, 학교돌봄터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학교돌봄터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였다.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최소영 센터장은 “이번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공공 돌봄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을지대학교가 성남시에서 위탁운영을 받아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의정부, 양주 청년회의소 협약 체결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은 의정부, 양주 청년회의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4시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 4층 화상회의실에서 이승훈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장과 최진웅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 김연하 양주청년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은 청년회의소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협력사업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승훈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장은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과 청년회의소는 이번 협약으로 상호 발전에 관한 협력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과 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대학, 졸업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1월 15일 의정부캠퍼스에서 '간호대학 대전캠퍼스 3기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3기 졸업동문 10여 명을 비롯해 김관복 의정부캠퍼스 부총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간호대학 교수진, 간호학과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환영사와 기념촬영,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 및 캠퍼스 투어 등이 진행됐다.

임숙빈 간호대학장은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의 졸업 20주년을 축하한다”라며 “여러분은 간호라는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화합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관복 부총장은 “간호대학 3기 졸업동문의 홈커밍데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동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우리 대학과 의료원에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2002년 첫 졸업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이래 올해까지 23년 연속 응시생 전원 합격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학사일정

12월9일(월)~13일(금)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월11일(수)~13일(금)
계절학기 신청기간

12월16일(월)~24일(화)
2024학년도 2학기 보강/
학부제 전공 선택(재학생)

12월26일(목)~1월15일(수)
계절학기 수업기간

1월13일(월)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작일

2월13일(목)
학위수여식(대전, 성남, 의정부 통합진행)

2월 25일(화)
2025학년도 입학식

2월26일(수)~28일(금)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및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3월4일(화)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제42회 을지문학상 공모전

올해로 제42회를 맞이한 을지문학상을 1982년 건학문학상을 모태로 시작되었다. 을지문학상은 재학생들의 인문학적 잠재력과 창작력을 일깨우고, 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어준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학우들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바쁜 일정에도 교양학부 김경섭 교수님과 김재희 교수님께서 자리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다. 오늘 제42회 을지문학상 시상을 통해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재학생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앞으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한다.



장례지도학과 황태영

올해도 을지문학상을 주최해 주신 학보사와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수상을 받고 올해 또 최우수상 받아서 더 감동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을지문학상을 알고 또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양학부 김경섭 교수님

이 글의 훌륭한 점은 문장에 기교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시를 쓰는 일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고백하고 솔직하게 성찰한다. 시를 쓰는 것은 자기를 돌보고 성찰하는 일이니, 원가를 계속해서 써내야만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현재를 버텨내기 위해 계속해서 시를 쓰다며 자기 고백을 하는 점이 인상 깊다.

시를 쓰는 일

사납게 캔을 따는 높은 파열음 같은 천둥
한순간 큰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었다
숫자가 바뀐다고 세상도 함께 바뀌는 것이 아닌데
돌아볼 것도 없이 어느새 나는 겪은 적 없는 곳에서 있다

그사실을 견딜 수 없을 때면
나를 물에 던져서 잠깐 빨고 싶다
다시 안 그랬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마치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남들 눈에는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봐
나는 무엇으로 이 나이가 되어서
또 무엇을 지고 여기에 있는 걸까

아 그냥 죽어볼걸
천과 동산이 강과 산이 될 때까지
살아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쓰는 글은
몸을 다해 슬퍼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는 일

겪은 적 없는 세상을 지나가려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이것밖에 없다



바이오공학부 이루나

안녕하세요. 바이오공학부 1학년 이은아입니다. 저는 '가을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작품을 쓰며 점점 좁아지는 가을처럼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앞으로 문학에서 오는 위로와 감동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학부 김경섭 교수님

우수작으로 뽑은 '가을을 잊은 그대에게'는 보기 드물게 중수필(重隨筆)이다. 이 작품은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을 주관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소논문처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사태를 바라보면서 썼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수필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까지 심사했던 수필 중 중수필의 형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다.

가을을 잊은 그대에게

“사랑은 첫인상과 함께 시작된다.”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이다. 첫인상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옳을까? 첫인상이라 함은 흔히들 ‘대상을 처음 봤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첫인상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상관없다) 다시금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몸짓 따위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첫인상이 완성된다(결코, 대상을 본 순간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의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 낯선 대상을 나에게로 더 잘 이해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문학 또는 예술작품을 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글과 친하지 않았던 내게 ‘이미지’

란 개념은 글을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작품을 더 훑어보고 싶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독서의 계절이 희미해진 지금,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렇기에 필자는 이 글의 독자가 나와 비슷한 연배의 20대 친구들(특히나 글과 멀어진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이 글을 읽고 이미지가 주는 힘에 이끌려 문학, 예술 작품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뤘다 할 수 있겠다. 이미지의 정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말하는 이미지는 문학에서의 ‘심상’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심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심상의 개념을 가장 잘 사용하는 장르인 시에 대해 알고보고자 한다. 시는 운율, 주제, 심상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자에게서 감정을 불러일으

⋮



간호학과(의정부) 이정현

제 소설 '아가미'는 유독 길고 뜨거웠던 올해 여름, 인간에게 아가미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사소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던 제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현실의 아가미를 가진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께 이 글을 바치겠습니다. 꼭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과 인생의 형태엔 정답이 없었니까요. 제 글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과 응원, 그리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문학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양학부 김경섭 교수님

'아가미'는 카프카의 변신을 연상시키는 작품이었다. 어느 날 주인공의 몸에 아가미가 생긴 사건을 주제로 하여 주인공이 겪는 신체적 변화가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연인 사이의 관계에 생기는 갈등과 그 갈등이 해결되는 상황을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재밌게 잘 구성했다고 본다.

아가미

'습도가 너무 높아 아가미가 생길 지경이다.' 이 불완전하고도 과학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문장에 대해 곱씹어본다. 무희의 눈앞에는 그 어긋난 문장에 반기라도 들 듯, 명확히 아가미라고 할 만한, 백이면 아흔아홉 명은 '이것이 아가미일세', 하며 수궁할 만한 것을 달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한 인간이 서 있다. 아가미를 둘러싸고 미끈해진 자신의 목을 붙잡은 은영의 울부짖음이 수증기만큼이나 뿌연 욕실을 가득 메운다. 은영의 부서지는 목소리 뒤로 뿌연 욕실 거울에는, 갑작스러운 애인의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무희의 얼굴이 일렁였다...

화장실 변기에 걸터앉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 좀 줘...”라고 읊조리는 은영의 얼굴을 보는 이들 이라면, 무희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할 것이다. 그저 어린애처럼 때를 쓴다고 해서 이 모든 현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날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온 은영에게는 정말로 눈물만이 살길인 것

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은영은 젖은 눈으로 나란히 정렬된 화장실 벽의 타일을 응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되짚었다. 며칠 전 왜인지 모르게 따라왔던 자신의 목을 일개 여름날 일어날 법한 두드러기로 생각하지 말걸, 한여름 띄약별 밑을 지나가며 '이 날씨면 물고기도 도로에서 살 수 있겠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우스갯소리로도 지껄이지 말걸...

안타까운 애인을 위해 물을 가지러 간 무희는 냉장고 문을 열지도 못한 채 그 앞에 서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야 만다. “아가미가 생긴 인간은 도대체 물을 어디로 줘야 하는 거지?”하고 말이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월요일 오전 7시 반, 무희와 은영 모두 출근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시간이었다. 오전 5시, 느닷없이 평소보다 이른 갈증이 느껴진 은영은 피곤함에 절은 눈을 비비며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냈다. 평소처럼 시원하게 보리차에 얼음까지 띄웠던 은영은 물을 마시며, 왜인지 물을 마실 때마다 귀와 목 부근 주변을 떠도는 기이한 감각

⋮

다시금 떠오르는 책의 불씨

독서 열풍

맹지환 학생기자 chungchungang@naver.com



지난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이자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에 대서특필되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와 책에도 눈길을 보이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하나의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모른체

명심보감에는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말이 쓰여있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표작 『월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책 한 권을 읽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가’라고 예찬했다. 이처럼 책과 독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삶의 기본이자 필수 양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엔 종이책이나 전자책 등을 1권 이상 읽은 종합 독서율은 2013년 72.2%에 비해 30%p 가까이 하락한 43.0%였고, 성인의 약 57%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TV 프로그램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가 일시적인 독서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말 그대로 일시적인 유행에 그쳤고, 서점과 출판사들은 오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루아침의 변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원래도 문학상 수상자의 경우 작품 판매량이 일시적인 상승률을 보이는가 하나, 이번 수상 이후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하나의 신드롬에 가까웠다. 대형서점 사이트의 베스트셀러는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가득 찼고, 서점 오픈런을 하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수십만 원에 작가의 책을 내놓는 이들도

많았다. 이에 수상 발표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됐고, 뉴스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밤샘 인쇄 작업에 돌입했음에도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 업체의 직원의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또한 한강 작가 작품의 관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의 책 판매율이 상승하거나 독서 모임을 조직하는 등 전반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숨은 조력자

하지만 ‘한강 신드롬’만이 독서 열풍을 이끌어난 것은 아니었다. 수상 전부터 서서히 유행하던 ‘텍스트 힙(Text Hip)’ 또한 한몫했다. 텍스트 힙은 말 그대로 ‘글자를 힙하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글을 읽는 행위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텍스트 힙의 가장 큰 특징은 SNS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글귀를 보면 필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신이 읽은 책을 추천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이런 텍스트 힙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반된다. 사람들의 독서를 장려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이를 지적 허영이나 과시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하지만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다른 물건도 아닌 책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 “사치품 인증과 비교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순간의 반짝임일지라도

일부 사람들은 독서 열풍 현상 자체에 회의감을 보인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관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어갈 지를 생각하면 그저 속 빈 강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책을 읽지 않는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구매하였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독서를 취미로 하게 될 사람도 있다는 말이 된다. 지속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어느 새 학기도 마무리되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읽어보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집어보는 것이 어떨까.

청년 사회 도약을 위한 변화 필요성

실업급여

이주현 학생기자 god051108@gmail.com



일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쉬는 청년’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을 불러오는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최근 ‘쉬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지원 정책은 ‘쉬는 청년’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업급여 증가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총 실업급여 증가와 원인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통계적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7만 원의 2배에 달하는 170만 4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작년 10월보다 각각 12.4%, 3.7%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수혜자의 증가는 총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총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10월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2조 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총 실업급여의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높여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의 횟수가 제한되지 않아 나타난 반복수급과 이에 따른 부정수급, 건설업 불황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 신청이 총 실업급여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실업급여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실업급여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업급여 증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업 급여의

목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높아진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욕을 저하하고 의존하게 만든다. 증가한 실업급여의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의존은 쉬는 기간의 장기화를 발생시켜 취업 가능성의 감소로 연결된다. 나아가 기업 채용에 어려움을 주어 고용시장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실업급여의 증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늘어난 실업 급여와 부정수급, 반복 수급과 같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악화가 나타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말 적자를 2조 675억 원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증가시키고 공공관리자금의 일부를 차입하였다. 예산을 실업급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운 고용 노동법 개정

실업급여의 증가는 실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실업급여는 오히려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6회 이상 수급을 받을 경우 수급액의 50%를 삭감하게 된다. 반복수급의 수급액을 삭감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복수급을 통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 노동법의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청년층의 지지율을 위해 실업급여를 낮추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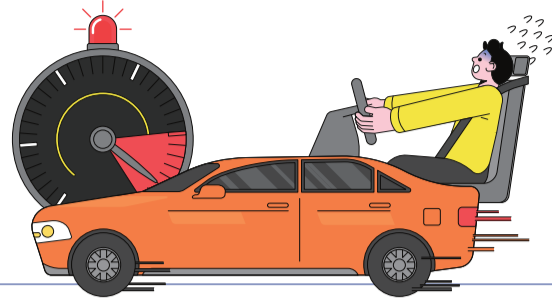
실업급여 문제 제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

정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주 수혜자인 청년이 실업급여가 주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고용노동법 개정안 발효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실업급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본인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의 도움과 고용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실업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예고 없는 재앙

차량 급발진 사고

설지은 학생기자 jeseol2003@naver.com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급발진의 정의는 “제동 효과의 명백한 손실을 수반한 정지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하는 현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운전 중 갑작스러운 급발진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과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이후 실제적인 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 증명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서 급발진이 일어난다면

급발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브레이크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인데, 먼저 브레이크가 눌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양발을 이용해 최대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두 발 제동을 시도해야 한다. EPB(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이는 흔히 아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식 방법으로,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 EPB를 많이 택하고 있다. 주행 중 EPB를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핸들 왼편이나 변속기 근처에 있는 ‘P’ 표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조차 여의치 않다면 차량 변속기 기어를 중립(N)으로 바꿔 엔진 동력을 끊어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동을 끌 수도 있지만, 핸들 조정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추돌 사고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급발진 인정 사례의 부재와 문제점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실제 급발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며, 이의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

나 운전자가 혼자 차량의 소프트웨어나 기계의 결함을 입증해 내기는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상태를 기록하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추세다.

수면 위로 올라온 운전자의 권리 보호

2022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운전자인 80대 할머니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본인의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고, 오랜 기간 재수사를 거쳐 결국 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차량 제조사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피해자 가족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청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자에게 전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차량 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급발진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급발진 사고 방지법의 도입과 추가 대책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최근 급발진 사고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차량 제조사가 급발진과 같은 결함 문제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운전자는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대비에 유리하다. 이는 만일의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페달 오조작인 경우도 사고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공 혹은 실패

황금티켓 증후군

조화란 학생기자 yulgog03@naver.com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입시에 몰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내어주면서까지 몰두하는 이유는 사회가 만든 성공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만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다수의 사람이 극도의 노력을 쏟아붓고, 성공하면 실제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한국적 현상을 ‘황금티켓 증후군’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황금티켓은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이다. 모두가 열망하는 황금티켓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켰을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

황금티켓은 유명 영국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유래했다. 소설에서 초콜릿 공장 사장인 윌리 워킹은 초콜릿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황금티켓 5장을 판매하는 초콜릿에 무작위로 숨겨두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겉으로는 운이 좋은 어린이가 황금티켓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금티켓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부유한 부모들이 운을 돈으로 사 자녀에게 선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오직 주인공 찰리만 순전히 행운으로 황금티켓을 얻게 된다. 소설이 유명세를 타며 황금티켓은 원하는 모든 걸 이루게 해주는 만능열쇠와 같은 수단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렇게 유래된 황금티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황금티켓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황금티켓을 향한 길

한국 사회에서 황금티켓 증후군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입학하여 성적을 관리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투자하고 있다. 황금티켓을 얻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불리는, 사회가 만든 성공의 길이 일반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다수가 참여하지만, 소수만 쟁취할 수 있는 경쟁에 사람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 인생을 바치면서 참여한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상실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들 중 상실감에 깊게 빠져버린 사람은 그냥 쉬는 청년이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황금티켓을 향한 경쟁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쟁에 소모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결혼, 출산 시기도 함께 늦어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남성 32.6세, 여성 30세이던 초혼 연령은 2023년 34세, 31.5세로 올라갔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의 수도 줄어들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부유한 사람이 황금티켓을 돈으로 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경쟁의 방향을 잡기 쉬운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고 때에 따라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기에 부의 격차가 늘어나는 건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성공하는 길

황금티켓 증후군을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성공하는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한 곳에 다수가 몰리는 현상을 예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회생 방안이 탄탄하게 갖춰져있다면 다른 길을 찾는 과정이 마냥 두렵지 않을 것 같다.

퇴임 기자의 글



신희진 편집장
heejin8885@naver.com

54기 학생기자로서, 그리고 학보사 편집장으로서 마지막 글을 적으며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편집장 자리를 맡았을 때는 좌절감이 앞섰다. 열떨결에 시작한 만큼 부담도 컸고, 글쓰기를 즐기지 않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경험이 내게 얼마나 의미 깊었는지를 깨달았다. 새로운 학생기자를 선발하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여러 학우들과 함께 작업하며 느낀 것은 학보사는 단순히 기사를 쓰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마찰하기도 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편집장으로서의 시

간은 모든 일이 낯선 도전이었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학생기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을 자리 잡는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3년간의 기사들은 우리 학보사 역사의 한 편이 되고, 그 속에 내 흔적도 함께 남겨진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제 나는 학보사를 졸업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 하지만 학보사에서 배운 것들은 내 삶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보사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열심히 함께해 준 모든 학생기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보사 학생기자들이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응원한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지만, 학보사와 함께한 순간들로 제 대학 생활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신입 기자로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학보사는 저에게 단순한 대외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신문 한 호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늘 치열했습니다. 기사가 될 만한 소재를 찾기 위해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수도 없이 찾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얻은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후에도 마감이 다가올수록 수정과 피드백이 이어졌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한 문장을 붙잡고 밤새 고민하기도 하며 마감과 학업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이름 석 자가 적힌 신문을 손에 쥐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학보를 읽으며 "이 글이 정말 내가 쓴 것 맞아?" 라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기사를 통해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거나, 생각의 씨앗을 키워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기사를 쓰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했습니다. 처

음에는 선배들에게 의지하며 조언을 구하던 제가 어느새 후배 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성한 신문 한 호 한 호는, 단순한 결과물을 넘어 함께한 시간과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학보사를 떠나며 느끼는 감정은 아쉬움과 뿌듯함,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학보사는 대학 생활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보사에서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글이 주는 힘과, 그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가치를 알려준 학보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보사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닌 독자의 자리에서 학보사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디지털 학보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학생기자
syshim0224@naver.com



길고 짧았던 지난 나의 3년의 대학 생활에는 항상 학보사가 함께했다. 1학년 때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자 선배의 말을 따라 학보사에 지원했다. 합격하고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학보사 회의에 참석했던 일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벌써 퇴임기자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하며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 수습기자 시절 첫 과제로 기사 스크랩을 받고 매일 기사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는 그저 기사 작성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사의 주제를 선정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과정이 익숙해졌고, 기사를 만드는 데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학보사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취재 활동이다. 카메라를 만져본 적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서툴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능숙하게 카메라를 다루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을 찍는 일도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킨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후배들이 이 점을 꼭 경험해보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사히 학보사 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학보사 일원들의 덕이 크다. 항상 든든하게 함께해 준 동기, 후배들, 그리고 조교님들 덕분에 어려운 순간에도 버틸 수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많은 영감을 얻었고, 본받을 점도 많다고 생각했다. 덕분에 나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더 나은 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학보의 디지털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학보사가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보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보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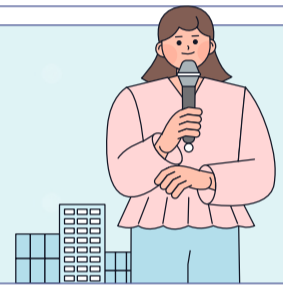
학보사에서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함께 했던 모든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길 기원한다. 학보사에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 나의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채연 학생기자
wkofcy@gmail.com



최은진 학생기자
eunjin7522@naver.com



어느덧 3학년의 끝을 맞이하며, 학보사를 떠나는 소감을 전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게 있어 학보사는 단순한 대학 동아리를 넘어선, 성장의 밑거름이자 인생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돌아켜보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보사를 통해 흘러간 시간은 그저 빠르게 지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도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1학년 시절,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학보사 활동은 저에게 소속감을 심어주었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수업이나 교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며, 기사를 위한 소재를 발굴하고, 글을 쓰고, 수많은 피드백을 거쳐 한 편의 기사를 완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후배 기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학보사 활동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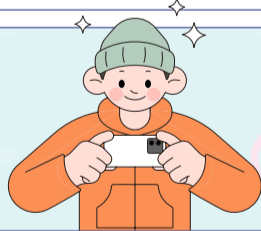
학보사에서 기사를 완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소재를 찾고, 기사의 구조를 잡고, 피드백을 받아가며 여러 번 다듬고 수정하며 완성에 다가가는 과정은

때론 어렵고 치열했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기사가 학보에 실렸을 때 느꼈던 보람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제 첫 기사가 실린 학보를 집 거실 벽에 붙여두고 볼 때마다, 처음 품었던 열정과 초심이 떠올라 큰 힘이 됩니다.

학보사는 저에게 단순히 글을 쓰는 재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학보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보사가 꾸준히 성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보사와 함께한 시간은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학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소재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로 학보사가 더 큰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보사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보사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민 학생기자
hmchoi0515@naver.com



비교적 늦은 나이에 다시 입학한 대학에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대전캠퍼스의 모든 학보사 업무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일종의 주인의식을 심어줬고, 그 덕에 3년 동안 나름 재밌게 일했다. 나는 평소에도 인터넷 뉴스를 즐겨 보고, 자취방 TV로는 뉴스 채널을 제일 많이 틀어놓고 산다. 이런 나를 본 학과 동기들은 아저씨 같이라며 놀리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생활 습관이 학보사 기사 소재를 떠올릴 때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늘 대전에서 지내다 보니, 학보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거의 거들지 못했다. 대신 몇 배는 더 수고해 주신 성남캠퍼스 소속 학보사 선·후배, 동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학보 발행 시즌이든 아니든 항상 고생하신 편집장님, 조교님, 주간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모든 활동을 마치고 학보사를 떠나지만, 후배들이 더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글쓰기 능력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서 일하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바쁜 학사일정 속에 귀찮고 부담될 때도 있겠지만, 의지를 갖고 기사 작성에 임해보면 좋겠다. 성남·의정부캠퍼스 소속 학보사 기자들과 교류할 일이 드물어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름이라도 기억해 뒀다가 혹시 나중에 병원에서 만나다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다.



소수의 편의, 곧 국민 전체의 편의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그간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주요 업무 지구인 강남, 여의도 등 도심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새벽 근로자들의 수요는 높았다. 새벽 4시 이전 시간대에서 수요도가 높았음에도, 운전기사 수급 문제 등으로 중단 우려가 있어 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남들보다 더 이른 시간에 기상하는 새벽 근로자들의 출근길 혼잡도를 완화하고 졸음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기존의 심야버스(A21)에 더불어 새로이 운행 시작된 '새벽 자율주행 버스(A210)'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늘어난 지원, 늘어난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이동 편의 개선, 신기술 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5.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 서울시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출근 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강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자율주행 버스에는 환승할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강원도 강릉시는 벚지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려자 편의를 위해 앱과 전화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하고, 충청남도 논주정차 단속 및 방법순찰 자율주행차, 대구광역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 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 순천역~국가정원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한다.

Autonomous, A160

서울시는 26일 오전 3시 30분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약 25.7km 구간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버스 'A160' 운행을 시작했다. A160은 기존 160번 버스 노선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단축했다. 번호 앞에는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해당 노선은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멈춘다. 다만 여의도의 '파크원타워·LG파크원타워' 정류소는 짧은 구간에서 차선을 많이 바꿔야 하는 구간이라 사고 위험이 있어 정차하지 않고 여의도환승센터에서 멈춘다. 또 안전을 고려해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으며 총 22명이 탑승 가능하다. 탑승 전 버스 앞에 붙어 있는 좌석 표시기나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하루 한 번 운행하는데, 안정화 기간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유료화될 계획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한 1,2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자율주행 전문업체 오토노머스에이

투지가 버스 운영을 맡았고, 향후 2025년에도 새벽 시간대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두운 새벽의 자율주행, 안전할까?

어둠으로 뒤덮인 심야와 새벽의 자율주행은 과연 안전할지 우려될 만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에 터널과 다리가 많이 있어 자율주행에 적합할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차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의 기하구조, 차량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한다. 이어서 유형별 대표 구간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심야버스(A21) 역시 시범운행을 거쳐 지금까지 무사고·무고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만일을 대비한 시험 운전자와 특별안전요원이 1명씩 탑승하고 있다. 운행구간 인근 소방서 경찰서와도 심야 긴급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동 중 사고와 승객들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다가올 더 나은 미래

한국 농어촌 지역과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도심지 외곽의 교통상황을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고령자의 이동에 도움이 된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 특히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역이 광범위하지 않고, V2X(차량-사물 간 통신), 인프라 등이 잘 구축되어 있어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활발한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상과 지역에 잘 적용된 자율주행 서비스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의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버스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민서 학생기자 | 2alstj@naver.com



을지대학교 학보사

인스타그램&카카오톡 6차 인증샷 이벤트



'제302호 을지대학보'를 읽고 가장 맘에 드는 기사를 골라 한줄평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 12. 16(월) ~ 2025. 2. 21(금)
당첨자 발표	2025. 2. 24(월) 예정, 학보사 SNS 공지 및 개별연락
당첨 인원	20명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
문의	031-740-7126 /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 이벤트 참여방법**
- ① 학교 홈페이지 및 학보사 SNS의 링크에 있는 학보 혹은 교내에 비치된 종이 학보를 열람한다.
 - ② 학보사 **인스타그램(@eulji_press)**을 검색하고 팔로우한다.
 - ③ 학보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찍거나 캡처한다.
 - ④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스토리로 학보사 인스타그램 태그 및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 유의사항**
- ① 인스타그램 비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지대학교 학보사)** 친구추가 후 'SNS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②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비공개 계정은 업로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인가, 기업의 족쇄인가

노동법을 넘어서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의 정확한 법 명칭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제정되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하지만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

으로 비판받고 있다. 어떤 정당의 지지나 색깔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노란봉투법을 바라봤을 때 학생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김지현 학생기자 kyn3638@naver.com

찬성 **장유정 학생기자** : 현행법은 하청 노동자, 특수 노동자 등 원행과 직업 계약하지 않은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어.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사건들이야. 노란봉투법은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교섭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특수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해.

반대 **양세원 학생기자** : 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야. 노란봉투법이 통과 될 경우 불법적인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또 법 안에 법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찬성 **박은서 학생기자** : 나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해.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야. 또 파업 등의 노동 쟁의 때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줘. 결국 노사 관계에서는 올바른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에 대화를 나눌 때 갈등을 줄여 주는 법이라고 생각해.

반대 **이다빈 학생기자**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현재 대다수의 파업이 사업장 점거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하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해.

찬성 **황하윤 학생기자** : 나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야. 특히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서 더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 대화를 유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야.

반대 **이성하 학생기자**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손해를 면책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과도한 법적 면책은 노조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무리한 또는 불필요한 강경 투쟁을 조장하고 있어. 이는 기업의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해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노사 간 건강한 대화와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닌 노사 간 협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보여.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노사 간 대화 촉진을 강조하며 법안이 노동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본다는 주장부터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논의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01호 소리엽서 당첨자

제301호 소리엽서 퀴즈

Q. 축구나 농구에 비해 지나치게 긴 경기 시간을 가진 야구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시간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도입한 수많은 제도 중 내년부터 시행되어 제한 시간 내 투구하도록 유도하고 경기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301호 소리엽서 퀴즈 정답

피치클락

제301호 소리엽서 당첨자

간호학과(성남) 조윤진, 간호학과(성남) 유다해, 간호학과(성남) 오수경, 간호학과(의정부) 황현서, 식품산업외식학과 홍승빈, 임상병리학과(성남) 윤지안, 바이오공학부 장상원, 아동학과 유민정, 아동학과 채서연,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김정희

제302호 학우들의 소리엽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Q1. 이번 호 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소리엽서

제302호 소리엽서 퀴즈

Q.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자율주행버스로 26일 오전 3시 30분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약 25.7km 구간을 왕복하게 되는 이 버스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온라인 소리엽서 제출 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302호 소리엽서 제출' 클릭
- ③ 채팅 메시지로 안내되는 '소리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학과(학부) _____ 학번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여러분은 을지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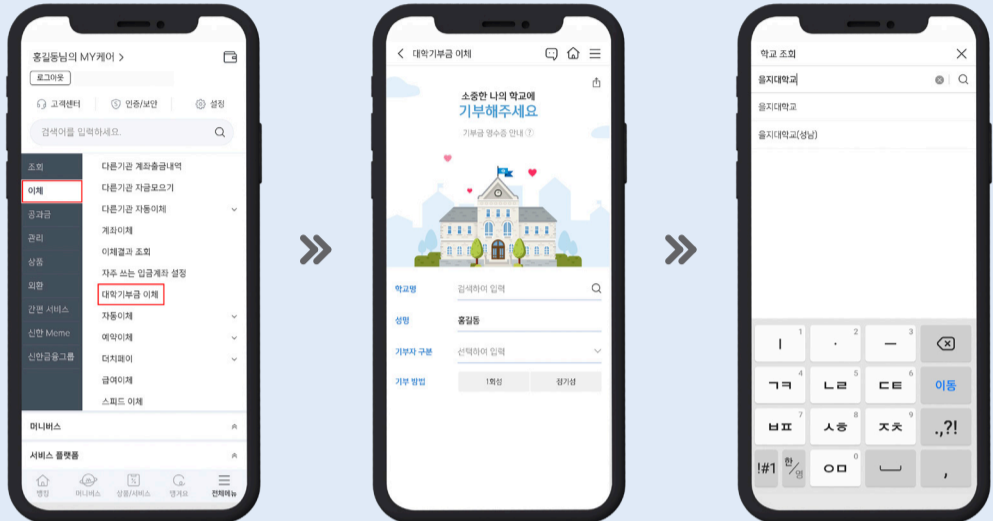
후원방법 01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



후원방법 02

앱 사용(신한은행 SOL 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메뉴 ▶ 이체 ▶ 대학기부금 이체

학교명 검색

- ① 발전기금: 을지대학교 선택
- ② 장학금: 을지대학교(성남) 선택

후원방법 03

지로통지서 후원(지원금액 자율)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MICR 지로영수증 (고객용) 지로번호 7559635 금액 30000 주소 후원자명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20년 월 일 을지대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전화: (031) 740-7467 팩스: (031) 740-7469	지로통지서 (금융기관용) 금융결제원 승인 제 119630호 MICR 지로번호 7559635 금액 30000 원 [기입요령]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예] 1 2 3 4 5 6 7 8 9 0 주소 후원자명 전화번호 을지대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전화: (031) 740-7467 팩스: (031) 740-7469 * 이 통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퇴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이 통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퇴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이 통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퇴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이 통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퇴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동문 을지대학교의료원 할인 혜택 안내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을지대학교 재학생·동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을지대학교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재학생

구분	본인(%)	직계(%)	
접수비(진찰료)	100	-	
급여	외래	30	
	입원	행위별	30
		신포괄	15
비급여	상급병실료	30	
	라식, 엑시머	10	
	MRI, SONO, CT 보철	20	
	제증명	20	
	종합검진	30	
	PET-CT	30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동문

구분	본인(%)	직계(%)	
급여	외래	15	
	입원	행위별	15
		신포괄	10
비급여	상급병실료	15	
	라식, 엑시머	10	
	MRI, SONO, CT 보철	10	
	제증명	10	
	종합검진	20	
	PET-CT	10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2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12